LA에 '시위 진압' 주방위군 배치…트럼프 노림수 통할까

국토안보부 장관 "불법이민단속 작전 돕고 시위 확산 막을 것"
주지사 "위기 조장"·이민자 단체 "상황 악화시키는 조치" 반발
치안불안 자극해 무당층 흔들기…정책실패 논란엔 시선 분산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불법 이민자 체포·추방에 반발해 일어난 대규모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투입을 명령한 주방위군 300명이 8일(현지시간) LA에 도착하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위 진압에 군대를 동원한 데에는 복합적인 정치적 노림수가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AP통신과 CNN 방송 등에 따르면 당국은 이날 오전 LA 주요 지역 3곳에 주방위군 총 300명이 배치돼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이날 "오늘 투입된 주방위군은 이런 유형의 군중 상황 대응을 위해 특별히 훈련받은 병력"이라고 밝혔다.

놈 장관은 주방위군 병력이 "(불법이민자 단속) 작전 수행을 위한 안전을 제공하고, 평화로운 시위를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라면서도 구체적인 활동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놈 장관은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체포돼 구금된 불법 이민자들이 구금시설에서 기본적인 물과 식량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시위대의 주장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답변을 피하면서 "폭력이 발생했을 때 그 시설에서 사람들을 출입시키는 것은 극도로 어려웠다"고 말했다.

미 연방수사국(FBI)의 댄 본지노 부국장은 이날 오전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불법 이민 단속 작전은 계속될 것이며, 폭력을 사용해 이런 작전을 방해하는 사람은 누구나 조사받고 기소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본지노 부국장은 또 "LA와 뉴욕에서 이미 다수의 체포가 이뤄졌다"며 "(시위대가) 폭력을 선택하면 좋지 않게 끝날 것이니 현명하게 선택하라"고 덧붙였다.

LA에서 대규모 시위는 지난 6일 ICE와 FBI 등이 다운타운의 의류 도매시장과 홈디포 매장을 급습해 이들 지역에서 일하는 불법이민자 44명을 체포·구금하면서 촉발됐다.

당시 ICE의 단속 현장을 비롯해 불법이민자들이 구금된 연방 구금센터 주변과 히스패닉계 주민들이 다수 거주하는 패러마운트 지역 등에서 당국에 항의하는 시위가 잇달아 벌어졌다.

시위는 7일에도 이틀째 이어졌고 거리 곳곳에서 나무와 쓰레기 등이 불에 타 연기가 솟구쳤으며, 시위대가 국경순찰대 차량을 발로 차는 등 과격한 상황이 벌어졌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자 단속 정책에 대한 항의 시위에 대응해 캘리포니아 주방위군을 배치한 후, 주방위군 대원들이 8일 로스앤젤레스에서 에드워드 R. 로열 연방 건물 밖에 서 있다. /연합뉴스

당국은 시위대를 해산시키기 위해 최루탄과 섬광탄을 터뜨리기도 했다.

이날 오전에도 LA시 남쪽 콤프턴 지역에서는 소규모 시위대와 당국 요원들의 물리적인 충돌이 빚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소셜미디어(SNS)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려 민주당 소속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등이 시위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연방정부가 개입해 문제를, 즉 폭동과 약탈자들을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방위군 2000명을 LA에 투입하는 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CNN은 미국 대통령이 시위 진압을 위해 주방위군을 연방 정부 명령으로 동원한 사례는 1992년 흑인 인종차별 문제로 촉발된 LA 폭동 이후 33년 만에 처음이라고 전했다.

또 미국 대통령이 주지사의 요청 없이 주방위군을 동원한 것은 1965년 린드 존슨 대통령이 민권 시위대를 보호하기 위해 앨라배마에 군대를 보낸 이후 처음이라고 인권단체들은 지적했다.

뉴섬 주지사는 트럼프 정부의 주방위군 투입에 대해 "의도적으로 시위대를 자극하는 조치"라며 "필요에 따른 것이 아니라 위기를 만들어내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트럼프 대통령)는 더 많은 단속과 더 큰 통제를 정당화하기 위해 혼란을 바라고 있다"며 시위대를 향해 "침착함을 유지하고 절대 폭력을 사용하지 말아라. 평화를 유지하라"고 당부했다.

이번 시위에 참여하는 단체들은 또다시 대규모 연대 시위를 조직 중이다.

현지에서는 군대를 동원할 만큼 시위가 격렬하거나 치안이 위태롭지 않았다는 얘기가 일반적이다.

로스앤젤레스 경찰(LAPD)은 시위가 대체로 평화로웠다고 밝혔고 지역 당국들도 시위 격화에 대처할 자체 역량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미국 대통령이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주지사의 요청 없이 주 방위군을 동원한 것은 1965년 민권운동 시대 이후 60년 만에 처음이다.

이처럼 이번 결단은 실질적 사유가 불분명하고 매우 이례적이라는 점 때문에 정치적 포석이라는 지적이 뒤따른다.

일단 정치적 동지이던 억만장자 일론 머스크와의 결별, 과격하고 논쟁적인 정책에 따른 지지층 이탈을 단속하려는 선명성 강화가 지목된다. /연합뉴스

美·中 런던 무역 협상 의제, 관세 아닌 수출통제

백악관 "中 희토류 對美 수출 미국 기대 못 미쳐"
중국도 협상단에 수출통제 총괄 상무장관 포함

미국과 중국이 오는 9일 영국 런던에서 개최하는 고위급 무역 회담에서는 관세보다도 양국이 산업에 필수적인 원료와 기술이 상대국으로 수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서로 시행한 수출통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그간 양국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고강도 관세가 일으킨 무역 전쟁에서 상대국을 압박하고 우위를 점하기 위한 무기로 수출통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수출통제가 핵심 갈등 현안으로 부상한 데 따른 것이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8일(현지시간) CBS 뉴스 인터뷰에서 중국과 무역 회담 의제에 대해 질문받고서 "(중국) 핵심 광물의 (대미) 수출이 이전보다 빠른 속도로 이뤄지고 있지만, 우리가 제네바에서 합의했다고 생각했던 수준만큼 빠르지는 않다"고 말했다.

앞서 양국은 지난 5월 10~11일 제네바에서 열린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에서 90일간 서로 관세를 115% 포인트씩 대폭 낮추기로 했으며 중국은 미국이 지난 4월 초에 발표한 상호관세에 대응해 시행한 비(非)관세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

그런데 미국은 중국이 해제하기로 한 비관세 조치 가운데 핵심광물과 희토류의 수출통제가 유지되고 있다면서 중국의 합의 위반을 주장해왔다.

세계 희토류 공급을 사실상 지배하는 중국이 희토류 광물 7종과 이를 활용한 영구자석의 대미 수출을 사실상 전면 중단하자 이런 광물을 수입에 의존해온 미국 자동차, 전자 등의 산업에 비상이 걸렸고 트럼프 행정부는 여러 국가와 동시다발적 무역 협상을 벌이는 가운데서도 중국발 공급망 차질을 막는 데 주력해왔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5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이 문제를 논의했으며 두 정상은 런던으로 고위급 협상단을 파견해 대화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가 중국의 '경제 실세'로 평가되는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를 오는 9일 런던에서 만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 "회담은 매우 잘 진행될 것"이라면서 시진핑 주석과 통화 이후 수출통제 문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되고 있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실제 중국은 두 정상 간 통화 이후 희토류의 대미 수출을 일부 허가했으나 아직 미국이 기대하는 수준에는 못 미친 것으로 보인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지난 7일 "중국은 책임있는 강대국으로서 각국의 민간 영역에서의 합리적 수요와 우려를 충분히 고려, 법규에 따라 희토류 관련 품목 수출 허가 신청을 심사했고 일정 수량의 법규에 맞는 신청을 승인했다"며 "법규에 맞는 신청 승인 업무를 지속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날 양국 간 무역 전쟁이 최근 관세에서 수출통제로 초점을 전환했다면서 중국이 오는 9일 회담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對)중국 수출통제의 해제를 요청할 것으로 관측했다.

미국은 최근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에 맞서 항공기 엔진,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 특정 화학물질, 원자력발전소 설비의 중국 수출을 제한했다.

또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14일에 전 세계 어디에서든 중국 화웨이의 인공지능(AI) 반도체를 사용할 경우 미국의 수출통제 위반으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했는데 중국은 이를 새로운 공격으로 간주하고 미국 측에 항의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제네바 무역 협상 때는 미국 대표단에 없었던 러트닉 상무부 장관이 이번 협상에 참여하는 게 중국이 환영할만한 신호라고 WSJ은 평가했다. /연합뉴스

일본, 동쪽 EEZ서 中항공모함 항해 첫 확인

일본 동쪽 끝 태평양 섬인 미나미토리시마 주변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중국 항공모함 항해가 처음 확인됐다고 NHK가 9일 보도했다.

방위성에 따르면 해상자위대는 지난 7일 미나미토리시마 남서쪽 300㎞ EEZ 수역에서 중국 항공모함 랴오닝함과 3대의 구축함 등 중국 함선 4척이 항해하는 것을 확인했다.

남서쪽으로 더 나아간 랴오닝함에서는 8일 항공기 이착륙도 이뤄졌다.

NHK는 "이번에 랴오닝함 등이 활동한 해역은 중국의 대미 방위라인 중 하나로 알려진 '제2도련선' 주변에 해당한다"며 "방위성은 중국이 항공모함 운용과 먼 거리 작전 수행 능력 향상을 도모한 것으로 보고 경계와 감시를 펼쳤다"고 전했다.

도련선(열도선)은 중국의 해상 안보 라인으로, 제2도련선은 일본 이즈반도-괌-사이판-인도네시아를 잇는 선을 지칭한다.

중국 쪽에 더 가까운 제1도련선은 일본 오키나와-대만-필리핀-믈라카해협을 잇는 선이며 제일 바깥에 놓인 제3도련선은 알류샨 열도와 하와이, 뉴질랜드를 연결한 선이다. /연합뉴스

레오 14세 교황, 민족주의 정치운동 비판

레오〈사진〉 14세 교황이 선출 한 달째인 8일(현지시간) 세계에서 나타나는 정치적 민족주의 추세를 비판했다.

AP 통신에 따르면 레오 14세 교황은 이날 성베드로 광장에서 성령강림절 미사를 집전하면서 "사랑이 있는 곳에는 편견, 이웃과 우리를 분리하는 '안전' 구역, 안타깝게도 정치적 민족주의에서도 나타나는 배타적 사고방식이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레오 14세 교황은 특정 국가나 정치인의 이름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로이터 통신은 레오 14세 교황이 지난달 8일 콘클라베(교황선출회의)를 통해 새 교황으로 선출되기 전 수년간 소셜미디어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비판하는 게시물을 올려왔다고 짚었다. /연합뉴스